

가쿠레 기리시탄: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형태를 지켜 온 사람들

‘잠복 기리시탄’과 ‘가쿠레 기리시탄’

19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잠복 기리시탄이 가톨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금교가 해제된 이후에도 잠복기의 신앙 대상이나 의례를 지키는 집단도 있었습니다(지금도 그 일부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잠복 기리시탄과는 구분지어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교기에 기리시탄 신앙을 묵인해 주었던 보리사(菩提寺) 등으로 귀의하여 불교나 신도(神道)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통과 조직

가쿠레 기리시탄의 신앙 조직과 행사에는 지역별 특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은 크게 히라도·이키쓰키 계통과 소토메·고토·나가사키 계통의 두 계통으로 분류됩니다.

신앙 조직에는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직된 ‘자비조(慈悲組, 미제리코르디아)’와 ‘신심회(信心會, 콘프라리아)’라는 두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1) 성스러운 자들을 수호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조카타 또는 오야지야쿠, (2) 세례를 내리는 미즈카타 또는 오지야쿠, 그리고 (3) 행사의 보좌와 연락 및 회계를 담당하는 기키야쿠 또는 야쿠추까지 세 직책을 지닌 자가 통괄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쿠레 기리시탄의 신앙 형태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1926~1946) 초기에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인구는 3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는 약 1,000~1,500명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가쿠레 기리시탄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도 축소되어 지금은 이키쓰키시마 섬과 소토메 지구, 고토 열도의 일부만이 남았습니다.

기도와 신앙의 대상

가쿠레 기리시탄이 의례를 치를 때는 신도들이 잠복기를 통해 구전되어 온 기도문인 ‘오라쇼’를 외웁니다. 보물이나 난도가미(작은 방에 갇힌 신) 등으로 불리는 신체(神體)에는 기리시탄 시절부터 전해졌거나 19세기 중엽에 선교사가 일본을 찾아와 건넨 플래킷이나 메달, 목주 등이 있습니다. 소토메와 고토 지방에서는 대대로 마리아 관음을 모시고 있으며, 이키쓰키에서는 오카케에라고 불리는 성화상 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가쿠레 기리시탄’의 의식

1904~1905년경

『사료 사진집 이키쓰키』 와타나베 구라스케 수집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2

이키쓰키시마 섬과 히라도지마 섬 사이에 위치한 성지 나카에노시마 섬. 1622년과 1624년에 요한(일본어로는 주완)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여러 순교자들이 처형된 장소.

성령과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나카에노시마 섬에서 채취한 물은 ‘성 요한 님의 물’이라고 부른다.

1904~1905 년경

『사료 사진집 이키쓰키』 와타나베 구라스케 수집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3

소토메의 가레마쓰 신사에는 바스찬의 스승으로 불리는 성 요한(St. John)을 모시고 있다. 근처에는 기리시탄 묘지와 금교기에 기리시탄이 오라쇼를 독송했던 장소인 ‘기도의 바위’라는 이름의 큰 바위가 있다.